

검안을 통해 본 조선시대 살인과 법의학

100년 전 살인사건

김호 지음

검안(檢案)은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시체 검사 소견서를 말한다. 법의학 판결 문인 '시장(屍狀)과 사건 관련자 심문 기록인 '공초(供招)를 포함한 일체의 살인 사건 조사 보고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하고 있는 검안은 2000여 책에 달한다. 대략 50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100여 년 전에 작성된 기록이다.

그렇다면 100년 전 조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를 살인을 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검안을 통해 조선의 일상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김호 교수가 펴낸 '100년 전 살인사건'은 범죄 현장에서 바라본 조선인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조사과정에서 법의학 증거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시체 검시도 사인 분석에 참고하지만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많아, 역설적으로 법의학 지식도 함께 발전했다. 물론 당시 검시는 시신을 해부하는 게 아니라 외상과 색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자는 "시체가 부패하여 검시가 불가능하거나 사대부 부녀자들의 경우처럼 시신(屍體)은 죽은 사람(인격)이 죽은 사람을 두 번 욕보인다고 여겨 면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시를 생략하거나 시신의 면검



요청을 받아들여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신은 사건 발생 지역에 두고 검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름철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지방관의 출발과도

작 일정까지 상세히 보고했다. 살인사건은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초검관과 복검관은 조사를 지휘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1·2차 조사 내용이 같으면 사건을 종결했지만 의심이 가는 경우엔 3차, 또는 그 이상을 조사했다.

검안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검시 보고서 '시장(屍狀)은 시체 상태를 상세히 묘사, 기록하고 있다. 검안에는 '시장'과 함께 취조기록인 '공초'가 실려 있다. 아전들이 구어체로 기록해 사료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민초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의 미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강도나 절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혼자 사는 과부, 남의 집에서 기숙하던 여성)이 범죄 대상이 되기 쉬웠다. 또한 살인으로 비화된 폭력은 개인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반 가문, 계나 두레 같은 평민들의 부조 조직 등 이익 집단 간에도 발생했다.

눈에 띄는 점은 19세기 말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민초들의 마음에 감정의 체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리학의 군자오는 거리가 멀었던 하층민들, 특히 여성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 강한 열정을 보



김준근 작 '살인에 검시하는 모양'(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휴머니스트 제공>

여줘야 했다. "강진에 살았던 김은애는 1789년 자신이 음탕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노파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관아에 자수했다. 그리고 이를 본 모든 사람이 그녀의 정열(貞烈(정렬))을 장하게 여겼다. 당시강진현감 박재순 역시 정상을 참작하여 그녀를 풀어주려고 했다. 다만 인명을 살상한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잠시 옥

에 가두었다가 이듬해 6월에 은애를 석방했다." 저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며 "100년 전의 소민들도 지금 우리들 각자가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휴머니스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는 무척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프로젝트'를 통해 네온 컬러 등 눈을 사로잡는 강렬하고 트렌디한 색감으로 젊은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신모래 작가의 새 그림책이다. 적막이 감도는 공간, 더욱 깊어진 색채, 가까이에서 차분히 바라본 쓸쓸한 얼굴들. 다소 무거워진 톤을 낮설게 받아들일지도 모를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이의 작업에 대한 소회를 덧붙였다. <현암사·2만원>

▲이것은 나의 피=생리와 생리를 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생리 불평등에 관한 탐사기다. 역사, 신화, 종교, 의학, 과학,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무진한 방대한 탐구를 지은이의 생생한 경험과 유머, 뛰어난 지성을 바탕으로 해석해 끝까지 흥미롭게 전달한다. 책의 지은이 엘리트 티에 보는 생리가 지극히 평범한 현상임에도 기이한 현상이라도 되는 듯 팔레트에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집필을 결심한다. <글·1만5000원>

▲활쏘기의 지름길=활쏘기의 사법 이론서이자 연구서로 전통 사법의 원리를 새롭게 밝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지은이 정진명은 전통 사법은 현대는 물론 미래에도 인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 사법이라는 한 주제로만 책을 꾸민 것도 그런 이유다. 활터 환경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전통



사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민사·2만2000원> ▲단 하나의 문장=2015년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한 구병모의 두 번째 소설집이다. 2018년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등 8편을 담았다. 지은이는 아이를 기르는 여성, 소설을 쓰는 여성을 중심인물로 내세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 실존적 불안, 다가올 시대의 윤리 등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동네·1만3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신비한 공룡 사전=고생물학자이자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박진영과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둔 공룡 그림 '덕후'인 이준성이 만든 '공룡 도감'이다. 총 100마리 공룡의 생물학적 특징과 극사실적인 모습이 책에 담겨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사실에 가까운 공룡 정보를 전달하고자 철저한 협업 속에 작업을 진행했다. 다양한 공룡을 소개하고 '백악기 대멸종 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공룡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씨드북·2만2000원>

▲걱정은 걱정말아요=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인성 그림책 '괜찮아, 괜찮아'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으로 '걱정'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책은 걱정을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불행해진다는 사실과, 걱정은 언제든 다시 나타나기에 각자 걱정에 대처하고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두레·1만원>

▲삼신 할망과 수복이=수복 할아버지가 벽장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명 실테레를 꺼내 먼 거속으로 들어간다. 과거에서 갑자기 저승 할망이 나타나서 수복이를 밀쳐 버려 수복이의 생명 꽃잎은 송송 떨어져 나간다. 온전히 못한 생명 꽃을 품고 수복이는 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에게 전통 문화를 살피고, 그 안에 담긴 정성스러운 마음을 살피고 있다. <풀빛·1만2000원>



'모데라토 칸타빌레' 등 문고판 시리즈 새롭게 시작

문지 스펙트럼 1~5권

문학과지성사 펴냄



문학과지성사가 펴내는 문고판 시리즈 '문지 스펙트럼'은 지난 1996년 황순원의 '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두 101권의 책을 출간했다.

출판사측은 발간된 시리즈 중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과 현재에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선별해 새롭게 '문지 스펙트럼'을 시작한다. 한국문학, 세계문학, 세계사상, 한국사상 등 다양한 분야 대신 세계문학과 세계사상 분야로

좁히고 기존 시리즈에 없던 작품도 추가했다. 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책 장정도 선보였다.

이번에 처음 출간된 책은 모두 5권이다. 시리즈 첫 권인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연인'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그리트 뒤라스의 대표작 중 하나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절대적 사랑을 찾아 헤매는 한 여인의 내적 갈등과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작품으로 '연인'처럼 개인의 체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다.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는 스물 여섯 해 짧은 삶을 살다 간 작가의 단편 스물 다섯편을 모은 작품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경험과 전후 목격담 전쟁의 참상을 형상화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거장이자 사회운동에도 앞장서온 오에 겐자부로가 스물세 살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 '새싹 뽑기, 어린 집

승 쓰기'는 이번 시리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 전염병 징후가 감도는 마을에 버려진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밖에 '추리소설의 창시자'로 꼽히는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는 탐정 뒤팡이 등장하는 표제작과 '어셔가의 몰락', '아문티야도 숲통', '황금 풍뎡이' 등 대표작 4편이 실렸으며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은 애정과 위트가 가득한 독서에세이다.

앞으로 출간 예정인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심격', 샤를 보들레르의 '별거벗은 내 마음', 플라톤의 '향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 등이다.

<문학과지성사·각권 9000원~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